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연계 협력

진도군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도서 33개 중 26개 도서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632,563㎢) 내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의 편의시설 하나 지으려 해도 제한이 따랐다.

이런 걸림돌을 효율적으로 타개한 것이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진도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특성상 산간오지, 도서 등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립공원 내 마을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제1호로 선정된 곳이 바로 진도군 관매도이다. 진도군의 섬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섬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진도군과 국립공원 내 마을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양 측은 상호 연계를 통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 일원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진도군은 필요한 시설을 적합하게 지어주고 유지·관리·보수를 국립공원 측이 맡는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환경파괴를 줄인 개발

시행과정에서의 갖가지 협의 과정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립공원 측은 환경파괴가 덜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설을 짓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가 쉽지 않게 된다. 경험상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진도군은 재료를 혼합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식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 측이 만족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위주의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예전부터 염려되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 협력을 통해 이런 염려를 불식시켰다. 사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면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발 사업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한편 진도군 조도면 일대의 20가구 이상 마을과 농경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또 20가구 미만 마을과 농경지는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되었다. 육상 63㎢, 해상 569㎢ 가운데 해제된 육상 면적은 약 6㎢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이로써 진도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주민 우선의 상향식 계획 수립

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 공무원이라 해도 도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주기반 조성이 중심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민들의 어업생산을 돕기 위해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안도로를 정비하거나 주거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먼저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섬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관광객 유치는 섬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어 있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환경정비,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편 개발 등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섬을 찾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섬 관광이 많아지던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왔다가면 섬에는 쓰레기로 넘쳐났다. 그 뒤처리를 모두 섬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섬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생겼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광객 유치로 인해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에 대한 이점에 대해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이도현상을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

관매도의 인기와 더불어 2010년에도 진행된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진도군의 여러 섬들은 한층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도군의 도서개발에서 가장 뒤처진 것은 교통편이다. 동남해권에 비해 진도군과 다도해상은 유람선조차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다. 유람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도 섬을 왕래하는 교통편은 쾌속선이 아니라 몇 대 되지 않는 도선(차나 물건을 싣는 배)이다. 관매도의 경우 관광객들이 1시간 넘게 배를 타야 한다. 빠르지도 않은데다 인원제한까지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여름 성수기에는 배편을 늘리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늘어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진도군은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서망항과 팽목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리나 시설과 크루즈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같은 시설이 확충되면 관매도권과 하조도권의 개발 전망은 아주 밝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70개의 성장촉진지역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진도군이 효율적인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섬에 사는 사람들도, 섬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자는 진도군의 바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눈부시게 변할 진도군을 기대해 본다.

조경수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담당자
jooksoo@korea.kr